

# “사계절 혜택”...강진군 ‘365일 반값여행 도시’ 전환 박차

### 60억원 확보...연중 운영 체계 구축 16개 지자체 확산 ‘관광 혁신’ 주도 지역 내 소비 유발 48억원대 달성 오는 31일까지 1차 사전 신청 접수

전국 최초로 ‘반값여행’의 포문을 연 강진군이 대한민국 체류형 관광 정책의 원조를 넘어 사계절 내내 혜택을 누리는 연중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군비 30억원에 국비 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더해 총 6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여행 시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 ‘365일 반값

여행 도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강진의 모델을 본떠 올해 65억원 규모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진을 포함한 전국 16개 인구감소지역이 공모에 선정돼 강진발(發) 관광 혁신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진 반값여행의 성과는 지난 6월 기준 총 2만 1천921팀이 사전 신청을 마쳤으며, 실제 강진을 방문한 1만3천785팀이 현장에서 41억9천만원을 소비했다.

특히 군은 19억8000만원 상당의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이 중 6억8천만원이 지역 내에서 재소비돼 총 48억7천만원에 달하는 강력한 소비 유발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혁신은 국정 운영의 핵심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문체부 등 관계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정책의 논리를 설득



지난 4월 개최한 마량농도수산물시장에서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구경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하며 국가 정책화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강진군은 오는 31일까지 1차 사전 신청을 마감

하고 6월 중 문체부와 협력한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반인에게는 50%, 청년층

에게는 최대 70%까지 여행 경비를 환급할 예정이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 참여는 ‘강진 반값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이벤트를 넘어 소상공인과 관광객이 모두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반값여행의 원조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관광객은 여행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사계절 언제든 찾고 싶은 관광도시 강진을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관 중 하나인 이해관 라이브 오션에서 관람객들이 영상을 구경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 ‘해조류 산업·블루카본’ 미래 비전 각인

### ‘Pre 해조류박람회’ 18만여명 방문 2천만여달러 규모 수출 상담 성과

완도군은 해조류의 생태적 가치와 미래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대한민국 해조류 산업 1번지’의 위상을 입증했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목표 관람객인 12만 명을 훌쩍 넘긴 18만7천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는 2028년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초전으로서 해조류 산업의 확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시 콘텐츠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감형 영상과 미디어 아트가 주를 이뤘으며, 해조류 이해관의 미디어 터널과 주제관의 실감형 콘텐츠는 해조류의 생태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직접 그린 해양 생물이 스크린에서 움직이는 ‘라이브 오션’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어 상설 운영이 결정됐다.

특히 산업·홍보관에는 식품 대기업과 지역 수출 기업들이 참여해 해조류 제품의 시장성을 타진했으며, 11개국 바이어가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9건, 2천170만달러(약 318억원) 규모의 업무협약 중 822만달러(약 120억원)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성과도 거뒀다.

이밖에 학술적 가치 공유를 위한 ‘블루카본 국제 포럼’과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서의 해조류 역할을 재조명하고 블루카본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완도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했다.

군은 이번 박람회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블루카본의 가치와 해양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비전을 세계에 알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박람회를 찾아준 국민과 헌신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해조류 산업의 영토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함평군, 과수 탄저병 예방 선제적 방역

### 농업기술센터 농가 대상 교육 실무 대응 전략 전수·약제 배부

함평군이 지역 과수 농가의 최대 소득 저해 요인인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감, 대추, 사과 등 관내 과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 탄저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방역 약제를 배부했다. 〈사진〉

과수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급격히



확산해 생산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고질적 병해다.

특히 발병 후에는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만큼, 기온이 오르기 전 선제적인 예방 관리와 적기 약제 살포가 농사의 성과를 가르는 핵심 요

인으로 꼽힌다.

이번 교육에서는 탄저병 발생 기작과 예방 방법은 물론 강우 전후 약제 살포 요령 등 농가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대응 전략을 공유했으며, 센터는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가 내리기 전 약제 살포를 반드시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교육 후에는 탄저균 침입을 막는 보호 효과가 우수한 전문 약제를 농가에 배부해 실질적인 방역 활동을 지원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복잡해진 병해충 발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만이 고품질 과수 생산의 해답”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강화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영규 기자

## 목포보호관찰소, 소외계층 농가 일손돕기

### 사회봉사 대상자 6명 봉사활동 작년 737명 지원...인력난 해소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시름하는 소외계층 농가를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용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12일 목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 위치한 장애인 부부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6명을 투입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제약으로 영농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취약 농가에 맞춤형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봉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늘종 제거 작업 등을 도우며 영농철 바쁜 일손을 보탤 수 있도록 했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 A씨는 “농번기에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걱정이 컸는데,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내 일처럼 도와주니 큰 고비를 넘겼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목포보호관찰소의 농촌 지원 사업은 지난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737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하며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목포=정해선 기자

## 진도군 ‘모바일 스탬프투어’ 사업 시행

### 최대 1만5천원 지역상품권 지급

진도군이 참여형 관광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활용한 지역상품권 드림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은 이번 박람회 ‘스탬프투어’ 앱을 통해 진도 내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인증 도장을 수집하면, 획득한 도장 개수에 따라 4개 이상은 5천원, 8개 이상은 1만원, 12개 이상은 1만5천원의 진도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스탬프 수집 장소는 ‘살라예울정원’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28개소, 서해랑길 투어 코스 6개소, 체험장 8개소 등 총 42개소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보상 품목을 기존 특산품에서 지역 특산물로 전면 개편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으로 즉각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광객은 모바일 인증 후 진도타워, 신비의바닷길체험관, 진도아리랑체험관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의 즐거움과 혜택을 더해주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도 방문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해남군 ‘월동 왕우렁이’ 확산 차단 나선다

### 평년비 기온 ↑ 개체수 급증 우려 이양 전 약제 방제·차단망 설치 등

해남군이 월동 왕우렁이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벼 생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제 지원에 나선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 이양 전부터 수확 전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왕우렁이 관리·방제 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

올해 해남군의 1-2월 평균 기온은 2도로 평년(1.5도)보다 0.5도 높아 상습 발생지를 중심으로 개체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초기 논 유입 차단을 위해 이양 전에는 물이 고이는 용·배수로에 사전 약제 방제를 실시해 월동 개체수를 줄이고, 논물 대기 전 차단



망과 울타리를 설치, 논바닥을 고르게 유지하는 균평 작업을 철저히 해 외부 유입을 원천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생육 중기인 7월 상순에는 중간물떼기 기간을 활용해 배수로 주변 웅덩이로 우렁이를 유인한 뒤 집중 수거해야 하며, 이후에는 논 말리기와 심경 작업을 통해 논 내부에서의 월동을 방지하는 등 재발 순환 고리를 끊는 작업이 병행된다. /해남=박필용 기자

## 무안군, ‘이순신 서사’ LED 퍼포먼스로 선포

### 극단 디스이즈잇 ‘광화문 그사내’ 오는 21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무안군이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서사를 첨단 무대 기술과 결합한 현대적 감각의 공연으로 재해석해 군민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인 극단 디스이즈잇의 LED 퍼포먼스 ‘광화문 그사내’를 오는 21일 오후 7시2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화문 그사내’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6개 에피소드로 구성한 다원예술 작품으로, 국악과 한국무용 등 전통예술의 문법을 유지하면서도 미디어아트, LED 라이팅, 3D 영상 프로젝션

매핑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압도적인 시각적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강렬한 음악에 동시대적 풍자를 담은 코미디 요소를 더해 대중성을 확보했다.

이미 2023년 국내 주요 공연예술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완성도를 인정받은 바 있는 이번 공연은 관객 참여형 연출로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무안군민에게는 70% 할인 혜택을 제공해 3천원에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승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통해 할 수 있다.

정대술 문화예술과장은 “전통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적 갈증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적극 유치해 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